

## “방치된 집에 공익 가치를”…동구 ‘빈집마켓’ 성과

3000만원 들여 자산동 빈집 단장…사업 첫 결과물  
4년간 시세 50% 임대…공공·민간 협업 사례 평가

광주 동구가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빈집마켓’ 사업이 첫 번째 성과를 냈다.

동구는 최근 자산동에 위치한 제1호 사업 대상지의 수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완공을 기념하는 ‘희망우편함 전달식’과 ‘입춘축(立春祝)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주택은 장기간 방치돼 노후화가 심각했던 빈집으로, 동구는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 전면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특히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 의지를 보이며 사업에 참여해 공공 자원과 민간이 협업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비 공사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옥상 방수 공사, 노후 가건물 및 창호 철거, 내부·외부 마감 정비, 벽면 미장 등 종합적인 보수 작업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재정비된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4년간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된다.

동구는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주거 안정과 지역 환경 개선, 자산가치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완공 기념행사에서는 새 보급자리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로 ‘희망우편함’을 설치하고, 새해의 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입춘축을 전달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동구 관계자는 “소유자의 정비 의지에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이 더해져 방치된 빈집을 공익적 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전환했다”며 “희망우편함에 앞으로 기쁜 소식이 가득하길 바라며, 주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빈집 정비 선순환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마켓’은 동구 빈집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동구청 누리집에 ‘빈집마켓’ 플랫폼을 마련해 빈집 정보 검색, 임대 등록 신청, 지원 사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동구는 최근 자산동에 위치한 제1호 사업 대상지의 수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완공을 기념하는 ‘희망우편함 전달식’과 ‘입춘축(立春祝) 행사’를 진행했다.

## 콘진원, K게임 차세대 인재 양성 ‘온 힘’

게임인재원 쇼케이스 성황…취·창업 컨설팅 등 호응  
유비스 등 13개 기업 참여, 1대 1 상담…콘솔 특강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경기 성남시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게임인재원 쇼케이스 2026’을 열고 교육생들이 개발한 독창적인 게임 13종을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게임인재원의 교육 성과를 대외에 소개하고 글로벌 콘솔 게임 개발에 대한 실무 중심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업계 관계자와 예비 게임산업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K-게임의 미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쇼케이스에서는 게임인재원 교육생이 제작한 13편의 작품이 소개됐다.

PC·엑스박스(Xbox)·가상현실(VR)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액션, 로그라이크,

어드벤처, 퍼즐, 호러, 역할수행게임(RPG) 등 장르적 한계를 넘은 다양한 시도를 선보였다.

게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인재의 진로 설계를 돕고자 취·창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엔씨소프트와 펠어비스의 취업 특강을 시작으로 유비스, 와일드플랜, 넥셀론, 제로원소프트 등 13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수요에 맞춘 1대 1 상담을 지원했다.

또 ‘K-Console! 글로벌 콘솔 시장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를 주제로 글로벌 콘솔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에는 아이디어 팩토리(IDEA FACTORY)의 사토 요시테루(Sato Yoshiteru) 대표, 스퀘어 에닉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경기 성남시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게임인재원 쇼케이스 2026’을 열고 교육생들이 개발한 독창적인 게임 13종을 선보였다.

(SQUARE ENIX CO., LTD.)의 테크니컬 프로듀서 벤 테일러, 컴투스 이태균 실장, 그림피 신성걸 대표 등 국내외 콘솔 게임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글로벌 콘솔 시장의 최신 동향과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콘진원 관계자는 “이번 쇼케이스는 게

임인재원의 교육 성과를 대외에 공유하고 산업계와 미래 인재를 잇는 가교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현장이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하남전자가 최근 ‘희망2026나눔캠페인 나눔 히어로·나눔 기업 릴레이 기부 챌린지’ 7주차 릴레이 주자로 참여했다.

㈜하남전자 ‘나눔 기업 릴레이 기부 챌린지’ 참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18만원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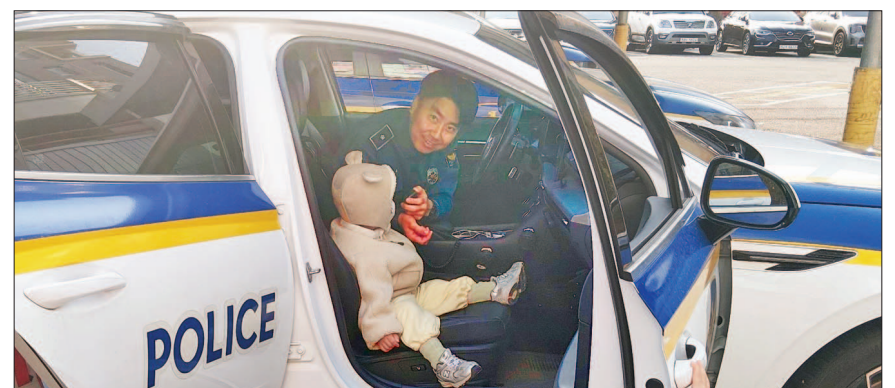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하남전자가 ‘희망2026나눔캠페인 나눔 히어로·나눔 기업 릴레이 기부 챌린지’ 7주차 릴레이 주자로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눔 기업 릴레이 기부 챌린지’는 광주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위원회가 매주 ‘나눔기업’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기업이 100만원 이상의 성금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부 참여 소식은 매주 금요일 공개된다.

캠페인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기부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모인 성금은 생계비·난방비·의료비 등 지역 내 취

약계층 지원에 전액 사용된다. 하남산단에 위치한 ㈜하남전자는 희망 2026나눔캠페인 성금으로 318만원을 기탁했다. 이에 광주사랑의열매는 최근 ㈜하남전자를 방문해 나눔기업 인증패를 전달했다.

조성은 광주사랑의열매 모금분과위원장은 “㈜하남전자의 나눔 실천은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번 릴레이 기부 챌린지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나눔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북부경찰 일곡지구대는 지역 어린이집 원아를 초청해 경찰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북부경찰 일곡지구대, 어린이집 경찰 직업체험

순찰차 탑승·안전 교육 진행

광주 북부경찰 일곡지구대는 지역 어린이집 원아를 초청해 경찰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체험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경찰의 역할과 치안 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순찰차 탑승 체험, 경찰 장비 체

험, 기초 안전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찰관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어린이들이 경찰을 친근하게 인식하고, 일상 속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김희준 일곡지구대장은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치안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신용정보협회장에 윤영덕 전 의원 선임

제6대 신용정보협회장에 윤영덕(57·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전남 담양 출신인 윤 신임 회장은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시민운동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어 21대 총선에 당선돼 민주당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임



교수로 재직하며, 디지털 시대 흐름에 맞는 인재 양성에도 힘썼다.

신용정보협회는 “윤 신임 회장이 그동안 구축한 네트워크와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현안 과제를 잘 해결해 신용정보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



㈜에스라이팅이 최근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장흥군에 안전물품을 기탁했다.

장흥 ㈜에스라이팅, 교통약자 안전물품 기탁

차량 조명등 750만원 상당

장흥기업 ㈜에스라이팅이 최근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장흥군에 안전물품을 기탁했다.

기탁된 조명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별도의 검사 없이 장착이 가능하며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도 멀리서 식별이 가능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주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발이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5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1월 중 ㈜에스라이팅 본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설치할 예정이다.

박병인 ㈜에스라이팅 대표는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이번 조명등 기탁이 야간 운행이나 작업 시 시야 확보에 도움이 돼 장흥군 교통안전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 장비를 기탁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교통약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경찰, 약국서 쓰러진 80대 심폐소생술로 구조

남부경찰 백운지구대 김경중 경감·나지선 경위

교통 불편 신고를 처리하던 경찰관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백운지구대 소속 김경중 경감·나지선 경위는 지난달 22일 오전 9시10분께 교통 불편 신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인근 약국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시민의 외침을 듣고 즉시 달려갔다.



나지선 경위

식을 회복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경찰관들은 호흡이 없는 8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기도를 확보한 뒤 구강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A씨는 응급처치 이후 의식을 회복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